

霧峯 高敬命의 使行詩 研究*

권순열**

<차 례>

1. 서언
2. 여정의 설렘과 민족적 자긍심
3. 辨誣外交의 현실과 한계
4. 새로운 도전과 준비
5. 결어

<국문초록>

제봉 고경명은 1581(선조 14)년 사절단의 한 사람으로서 명나라에 다녀왔다. 사절단은 명나라에 태조 이성계의 잘못된 중계를 시정해 주도록 요구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었다. 이때 고경명은 서장관이었다. 그의 임무는 사절단의 여러 임무를 왕에게 보고하고, 사절단의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었다. 사행 기간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극복하고,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사행 기간 동안 쓴 고경명의 시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만주를 지나 북경까지 갈 때 쓴 것들이다. 두 번째는 북경에서 사행 업무 동안 쓴 것들이다. 세 번째는 북경을 떠나 귀국할 때 쓴 것들이다. 그는 사행 기간 동안 64수의 시를 썼다. 만주를 지나가고 있을 때 쓴 시들은 이국적 정서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인 시가 <분수령>과 <알문묘>이다. 분수령에서는 많은 사신들이 시를 지었다. 그곳은 휴식의 공간이면서 의미가 심장한 곳이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물은 요하로 들어가고, 동쪽으로 흐르는 것은 압록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경명은 <알문묘>에서 중국문화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과 우리 문화에

* 이 논문은 2009년도 조선대학교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대한 자긍심을 보여주고 있다.

북경에 도착한 그는 외교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명나라의 비호의적인 처신과 엄격한 통제 때문에 활동에 애로가 많았다. 이때 그는 <예예부상서>와 <문성지불허강칙창음첩전운>이라는 2수의 작품을 썼다. 그는 이들 작품들을 통해 종계변무 외교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리고 그는 귀국길에 북경 근교에 있는 삼층사를 참배했다. 이 사원은 중국의 가장 위대한 충신인 제갈량, 악비, 문천상을 제향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다. 고경명은 특히 문천상에 대한 감회를 토로하고 있다. 문천상은 의병을 이끌고 투쟁하며 죽을 때까지 원나라에 항복을 거부한 우국지사이다. 이 시에서 고경명은 문천상을 자신의 이상적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귀국길에 고경명은 <칠가령체석집고구>라는 시를 짓고 있다. 이 시에서 그는 고국에서의 미래를 위한 강한 결단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귀국을 또 다른 환로의 출발로 삼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고경명에게 있어서 1581년에 있었던 명나라 변무외교 사행길은 인생의 큰 분수령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환로에서의 진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이고 있고, 문천상과 같은 충신의 길을 걸겠다고 하는 삶의 좌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어 : 사행시, 종계변무, 사행, 서장관, 삼층사, 문천상

1. 서언

제봉 고경명(1533, 중종 28~1592, 선조 25)은 1581(선조 14)년 宗系辨誣奏請使 金繼輝의 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81(선조 14)년 명나라 『大明會典』이 중찬될 것이라는 소식이 조선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천제일우의 소식을 접한 조선 조정은 잘못 기록된 태조 이성계의 宗系를 명나라에 교정해 주도록 주청하기 위해 주청사절단을 파견했다.

제봉은 명나라 사행길에 특히 문천상에 대한 깊은 경모심을 보여주었다. 제봉이 문천상에 대해 보여준 관심은 제봉의 정신이 누구에 닿아 있고,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제봉은 명나라 사행길과 명나라 사신들을 접대하면서 많은 시를 남겼다. 특히 본고에서는 제봉이 요동 땅에 들어가서 지은 <過江宿三孫家>에서부터 귀국 전에 지은 <七家嶺除夕集古句>까지 56題 64首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명나라에서 귀국한 제봉은 1582(선조 15)년 明使遠接使 李珣의 천거로 그의 從事官이 되기도 했다. 물론 그가 종사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글재주뿐만 아니라 명나라 사행길에서 얻은 경험과 명나라 유명 인사들과의 친분을 높이 평가한 측면도 있었다. 그는 종사관으로서 원접사를 보필하여 대명 외교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창의하여 자신과 두 아들과 가족을 던져 조국과 백성을 구하고자 했다. 이것은 바로 제봉의 조국에 대한 충성과 백성들에 대한 애민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제봉의 경우는 어려움을 만나 은둔했을 때에는 천하가 그의 시를 외웠고, 일을 당해 나아갔을 때는 원근이 그의 공적을 아름답게 여겼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어 목숨을 바쳤을 때에는 고금이 그 의리를 높이 여겼다. 이처럼 그는 만나는 바에 따라 명성이 뒤따라 옮겨갔다는 평을 들었다.¹⁾ 본고에서는 제봉이 일을 당해 나아갔을 때 그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렀고, 그의 처신이 어떠한가를 밝히고자 한다. 제봉의 조국에 대한 충성과 백성을 사랑한 애민정신에 대한 연구는 호남학 연구의 중심축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제봉의 문학과 정신이 磁場의 중심이 되어 호남 사람의 의식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1) 이항복, 『霧峯集序』 참조. 『霧峯集』 수록.

2. 여정의 설렘과 민족적 자긍심

종계변무란 조선 태조 이성계의 잘못된 宗系를 시정해 달라고 주청하던 일을 말한다. 이 사건은 1394(태조 3)년부터 1584(선조 17)년까지 근 200여 년간 끌어온 조선 조정의 정통성과 관련된 외교문제였다. 사건의 발단은 고려말로 소급된다. 이성계의 정적이던 尹禔李初가 명나라로 도망하여 이성계를 고려의 權臣 李仁任의 후손이라고 했다. 명나라는 그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太祖實錄』과 『大明會典』에 그대로 기록했다. 이것은 조선 조정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였다. 이인임은 이성계의 정적이었는데 그의 아들이라는 것은 참으로 치욕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국력을 집중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명나라는 이런 저런 구실을 들어 쉽게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1581년 5월 1일 『대명회전』의 증찬이 거의 끝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자 율곡 이이가 외교 능력을 지닌 사람을 특별히 선발하여 辨誣奏請使로 보내자고 하였다. 이에 조정의 대부분은 이이가 적임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박순과 이산해가 반대하였다. 그래서 결국 김계휘를 변무주청사로 삼았다. 그러자 김계휘는 고경명을 서장관, 최립을 질정관으로 추천하였다. 그런데 고경명의 경우는 아버지의 죄에 연좌되어 散官이 되었고, 최립의 경우는 문벌이 그렇게 뛰어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들은 말이나 글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김계휘가 특별히 추천했다.

그러면 1581년 파견된 宗系辨誣奏請使의 일행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奏請使 黃岡 金繼輝(1526, 중종 21~1582, 선조 15)는 경서에 밝고 문장도 뛰어났었다. 1549(명종 4)년에 과거에 올라 사가독서에 뽑혔다. 1566(명종 21)년에는 문과중시에서 장원을 하였다. 인물을 알아보는 데 밝았고 정사를 처리하는 데 민첩했다. 그리고 1571(선조 4)년에는 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적이 있다. 이처럼 김계휘는 명나라 사행의 경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주청사 김계회를 보필했던 부사는 누구였는지 자세하지 않다.

서장관 고경명은 1552(명종 7)년에 진사시에 장원하였다. 1558(명종 13)년 임금이 직접 성균관에 나가 실시한 시험에서 장원하여 殿試에 나가도록 하였는데 갑과에 장원하였다. 그 후 성균관전적, 공조좌랑, 형조좌랑, 사간원정원 등을 거쳐 湖堂에서 賜暇讀書하였다. 그 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다가 주청사 일행에 합류했다. 어쩌면 제봉이 주청사 일행에 합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사실상 당대에 제봉이 문장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1582(선조 15)년에 명나라 사신 黃洪憲이 왔을 때도 증명된 바다. 그때 접반사 율곡 이이가 사헌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봉을 종사관에 발탁한 것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²⁾ 제봉이 맡은 서장관이란 正使, 副使와 함께 三使로 불리었다. 제봉의 임무는 사행 중의 사건을 기록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는 일이었다. 삼사 가운데 지위가 가장 낮았으나 일행을 감찰하고 人馬와 卜馱를 점검하는 行臺御史의 임무를 겸하여 행대라고도 하였다. 그러므로 사절단의 모든 일을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임무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보필하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질정관인 簡易 崔昱(1539, 중종 34~1612, 광해군 4)은 빈한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뛰어난 재질을 발휘하여 1561(명종 16)년에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그는 시와 서예에도 뛰어났으나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인정을 받아 중국과의 외교문서가 대부분 그의 손에서 나왔다. 그런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1577(선조 10)년에 이어 다시 질정관으로 주청사절단에 참여했다. 질정관이란 조선 시대 중국 사절단에 함께 참여하는 임시 벼슬이다. 글의 音韻이나 기타 체도 등에 관한 의문점을 중국에 질문하여 알아오는 일을 맡았다. 문신 중에 나이 젊고 총명하며 민첩한 사람을 가려 승문원에 소속 시켜 漢語와 吏文을

2) 『宣祖修正實錄』, 15년 9월 13일 참조.

학습시켰다. 그들 중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을 뽑아 질정관으로 임명하여 중국 사절단과 함께 북경에 가게 했다. 이 질정관에 최립이 임명되었다. 최립은 중국에 가서도 그곳 문장가들로부터 그의 재주를 인정받아 명문장가라는 격찬을 받았다.

그리고 일행 중에는 書寫官 石峯 韓濩(1543, 중종 38~1605, 선조 38)도 있었다. 그는 글씨로 출세와 이름을 날린 대표적인 서예가이다. 寫字官으로 국가의 여러 문서와 명나라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도맡아 썼다. 그는 한미한 출신으로 오랫동안 사자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글씨는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개성적인 멋이 부족하다는 평도 들었다. 그러나 전형적인 틀에 맞아야 하는 국가 문서를 다루는 사자관으로서는 그보다 뛰어난 인물이 없었다. 그래서 서사관으로 주청사절단에 합류했다.

이처럼 사행 인물들의 면면을 종합해 볼 때 1581년의 종계변무주청 사절단은 명나라 현지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재주가 뛰어난 최고의 인물들로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봉은 주청 사절단 일행과 요동에 들어가 면서부터 여러 시를 남겼다. 이미 예상한 바이지만 막상 이국땅에 들어와 말로만 듣던 지역과 풍물을 보니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심을 주체할 수 없었다.

一嶺橫空二水分	큰 고개 가로질러 물줄기를 나누었고
客行迢遞帶斜曛	나그네길 가물가물 석양이 깃들었네.
村連古塞人烟僻	변방 마을에는 밥 짓는 연기도 없는데
天近重陽瘴雨紛	중양절에 접어든 때라 곳은비만 내리네.
秦牘正須追曼倩	사신의 직책은 만천을 본받아야 하나니
棄繻何必慕終軍	결심 이미 굳혔는데 어찌 종군을 사모하랴!
今朝不作辭鄉泣	오늘 아침 사향령에 눈물짓지 않았으니
帝所鈞天指日聞	불일내로 배알하고 군천 풍악 들으리.

<分水嶺>³⁾

3) 고경명, 『霽峯集』, 卷之四.

분수령에서 지은 시이다. 분수령은 草河口에서 일박을 하고 출발을 하여 20리 길을 가면 당도하는 고개이다. 사행길의 통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다. 이 분수령 밑에 물이 있는데 서쪽으로 흐르는 것은 遼河로 들어가고 동쪽으로 흐르는 것은 압록강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분수령이라고 이름했다. 물이 어느 곳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요하로 가기도 하고 압록강으로 가기도 한다. 분수령은 고개인지라 밑에서부터 고단한 길을 걸어온 사신들의 휴식의 공간이었다. 그래서 사신들이 이곳에서 휴식하면서 시를 짓는 경우가 많았다. 이곳에서 시를 많이 지었던 것은 이곳이 휴식의 공간이면서 이 고개가 갖는 의미가 심장하기 때문이었다. 이 세상사가 처음에는 티끌만한 차이로 시작되나 종내에는 운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운명적 갈림길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는 것은 비단 사신들의 행렬만은 아니었다. 때문에 이곳에서 시를 짓는 경우가 많았다.

이 분수령에서 제봉은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 시절은 9월 9일 중앙절에 가까운데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날씨가 좋아도 사행길은 힘든데 꺾은비가 내리니 가는 길이 더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봉의 경우는 달랐다. 외적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각오는 더 단단했다. 제봉이 본받고자 하는 인물은 문장에 뛰어나고 말을 잘하는 東方朔과 같은 인물이다. 동방삭은 자칭 용맹함은 盟賁 같고, 민첩하기는 慶忌 같고, 신의를 잘 지키기는 尾生 같다고 했다.⁴⁾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한 면도 있으나, 것처럼 기지와 재치가 번뜩이는 인물이었다. 제봉도 동방삭처럼 어려운 국면을 헤치고 조정과 임금에게 충성으로 보답을 하고자 했다. 그렇다고 해서 終軍과 같은 인물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終軍은 한나라 濟南 사람으로 언변이 뛰어나고 문장에도 능하였다. 그리고 무모할 만큼 대담하기도 했다. 武帝가 南越과 화친하려고 하자, 자신에게 긴 밧줄을 주면 南越王의 목을 매어 오겠다고 자칭하였다. 그리고서는 남월에 사신으

4) 『漢書』, 卷六十五.

로 가서 남월왕을 설득하여 內屬하게 하였다. 그런데 남월의 재상 呂賁가 내속을 원하지 않고 군대를 일으켜 왕과 한나라 사신을 전부 몰살하였다. 당시 종군의 나이 20여세였다.⁵⁾ 종군은 젊은 나이에도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내던졌다. 하지만 종군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완수했다고는 할 수 없다. 제봉의 경우 종군과는 조금 달랐다. 이미 각오를 단단히 했을 뿐만 아니라 임무를 완수할 자신감과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지않아 천자의 거처인 북경에 가서 鈞天廣樂을 듣겠다고 했다. 이때만 해도 제봉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주청사 일행은 명나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명나라는 변방 조선에 대한 책략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종계변무는 너무나 당연한 일로만 여기고 너무 원칙에만 얽매인 점이 있었다. 그 결과 피상적으로 보이는 모습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廟庭苔駁斷爐熏	이끼 낀 묘정에 향로 훈기 끊겼고
絃誦蓼蓼不可聞	글 읽는 소리 적적하여 들을 길 없네.
像設欹傾塵撲面	위패 뒹굴어지고 먼지 가득히 쌓였으니
上丁牲醴只虛文	상정의 제사도 다만 형식뿐이네.

<謁文廟>⁶⁾

遼陽城의 문묘에 배알하고 지은 시이다. 문묘는 공자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당나라 시대 공자를 文宣王으로 봉하고, 그 사당을 文宣王廟라 하였다. 元明 시대 이후 이것을 생략하여 문묘라 했다. 제봉이 명나라 땅에 들어와 유자로서 공자의 사당을 참배했다. 그런데 문묘의 모습을 본 제봉은 참담한 심경에 빠졌다. 문묘의 향로에는 향불이 꺼지고 경서를 읽고 있는 선비들의 송독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자 성인의 위패도 뒹굴어져 있고 먼지만 쌓여 있었다. 상정일에 드리는 제사도 물론

5) 위의 책, 卷六十四.

6) 고경명, 『霽峯集』, 卷之四.

형식적이었다. 조선에서 보았던 문묘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실상과 조선인의 인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중국이 유교 문화의 발상지라고는 하지만 유교 문화가 조선보다 더 융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유교, 불교, 도교 등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고 조선은 유교와 불교가 두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에 자리 잡은 유교 문화는 규모면에서는 중국에 뒤질지 몰라도 고착화되고 정체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중국보다 성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동 사람들은 釋奠祭의 의식이 성대하다고 자랑까지 하고 있었다. 제봉은 사행을 통해서 조선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체험을 했다. 문묘를 배알하고 난 후 제봉의 심경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위의 시에 드러난 것처럼 엄청난 실망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실상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얻은 이런 자긍심은 제봉에게 중국의 문물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예리한 안목을 갖게 했다.

東征遠涉彈丸地	동쪽으로 정벌하러 멀리 건너 온 이 작은 땅에
伯氣猶存百戰餘	패기는 백여 번 싸웠어도 그래도 남았네.
秦卒誤驚淝水鶴	진나라 군사는 비수의 학 소리에 잘못 놀랐고
隋兵俄化薩江魚	수나라 군사는 순식간에 살수의 물고기 밥이 되었네.
英威頓挫回鑿日	영웅의 위엄도 회군의 날에 좌절되었고
廢壘空傳駐蹕墟	무너진 성터는 머물던 곳이라고 부질없이 전하네.
雪恥除兇非盛節	설욕이나 흉적 침이 왕도가 아닌데
勒勳何用慕狼胥	낭서산의 공덕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首山>7)

수산은 요양성 남서쪽에 있는 산이다.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곳이라 하여 駐蹕山이라고도 한다. 당태종의 고구려 정벌의 실패에 대해서는 중국의 사서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7) 고경명, 위의 책, 같은 곳.

수련은 당태종의 고구려 정벌의 초라한 흔적을 서곡으로 제시하고 있다. 함련은 오만에 가득 찬 몽매한 군사 작전의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두 가지 고사를 들고 있다. 첫 번째는 비수 전투이다. 오호십육국 前秦의 군주인 苻堅은 영웅의 재주와 지략에 자애로운 은혜와 忠信을 겸하였다. 그는 위대한 영웅이 갖추어야 할 미덕을 거의 구비했다고 할 수 있다. 강한 燕나라를 병탄하고 해서 지방을 차지하였으며, 索頭를 사로잡고 龜茲國을 도륙하여 순식간에 천하의 10분지 9를 차지하였다. 그렇게 되자 교만해진 부견은 383년 백만 대군을 동원하여 晉나라를 공격했다. 부견의 침략에 대해 진나라에서는 謝安이 謝玄 등을 독려하여 대항하였다. 부견은 壽陽城에서는 八公山의 초목을 바라보고 진나라 병사라 여겼고, 비수 전투에서는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진나라 군대가 밀려오는 것이라 잘못 알고 달아나다 대패하였다. 이때 부견은 流矢에 맞고 單騎로 겨우 도망하였다. 결국 부견은 비수 전투의 패배로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다. 부견이 망한 이유는 자기 나라가 강성하고 큰 것만 믿고 교만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고사는 薩水大捷이다. 612(영양왕 23)년 수나라 煬帝는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고구려의 주요 군사 거점인 요동성을 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于仲文과 宇文術을 지휘부로 한 30만 5천 명의 별동부대를 편성하여 평양성을 공격하려 하였다. 별동부대가 압록강에 집결했을 때 을지문덕은 왕명을 받들어 거짓 항복을 청하여 적진으로 들어가 군량이 부족한 수나라 군대의 약점을 간파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수나라군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접전할 때마다 패주하는 척하면서 평양성 부근까지 유인하여 수나라 군대를 극도로 피곤하게 하였다. 그런 후 후퇴의 명분을 찾고 있던 수나라 군대에게 영양왕의 알현 등을 조건으로 회군을 종용하면서 시를 보냈다. 수나라 군대가 회군하자 살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습적인 반격을 가해 대승을 거두었다. 이때 살아간 수나라 군사는 겨우 2천 7백 명이였다. 수나라도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전한 이후 곧바로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것은 제봉이 당태종을 전진의 부견과 수나라의 양제 같은 인물로 폄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련은 고구려 정벌에 나선 당태종의 치욕스런 좌절을 말하고 있다. 당태종은 후방의 퇴로를 차단하려는 연개소문의 작전으로 안시성 싸움을 중단하고 돌아났다. 그런데 당태종은 軒芋瀨에 이르러 말이 진흙 속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고 방황했다. 그때 당태종은 양만춘의 화살에 왼쪽 눈이 맞아 생포될 지경이었다.⁸⁾ 그러므로 당태종의 고구려 정벌 계획은 여지없이 분쇄되었다. 그리고 미련은 당나라인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당태종은 고구려 정벌을 나섰다가 왼쪽 눈을 잃고 死地에서 겨우 목숨을 구했지만 결국 화살 독으로 죽었다. 그런데도 당나라는 이웃 나라와의 선린 관계를 망각하고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전승을 기념하는 白塔을 세우고 자랑거리로 삼았다. 하지만 당나라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안록산의 난리 등 흑독한 시련을 겪었다. 이 시는 제봉의 준엄한 역사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훗날 잘못된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귀결되는가를 예견하는 좋은 징표라고 할 수도 있다.

3. 辨誣外交의 현실과 한계

사신들이 북경에 오자마자 서두르는 일은 공식적인 업무 수행이다. 사신들의 업무는 주로 공식문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때문에 외교의 성과를 얻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공식적인 활동 이외에 비공식적인 접촉도 시도를 했다. 특히 宗系辨誣 같은 일방적인 문제는 비공식적인 접촉이 필요했다. 그때 접촉 대상 인물은 주로 전에 사신으로 조선에 왔던 인물들이었다. 아마 韓世能, 陳三謨 등이 주 접촉 대상이었다. 사신들의 활동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었고 언어가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을 접촉하기는 처음부터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

8) 신채호, 『朝鮮上古史』, 종로서원, 1948, 310쪽 참조.

때 접촉은 주로 通事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접촉을 시도하면서 때로는 여흥의 시간도 가졌다.

久客烏巒館	오만관에서 오래도록 머물다가
偏多異味嘗	진기한 음식 골고루 맛보았네.
酒傾秋露白	흰 감로주 자주자주 기울였고
柑劈洞庭黃	누런 동정굴 빛깔도 좋았네.
荔子紅紗嫩	여지는 울룩불룩 붉게 익었고
橙丁玉糝香	등정은 옥삼처럼 향기로웠네.
他時談食品	다른 날 식품 이야기를 한다면
持此詫吾鄉	이 물건을 가지고 고향에 자랑하리.

<寥中漫錄所見>⁹⁾

제봉이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밀려드는 임무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되고, 주변도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 북경에 머물며 몇 번의 술자리도 있었지만 어느 때 한번 마음편할 때가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펼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때 제봉 일행이 묵고 있던 숙소는 오만관이였다. 원래 조선 사신들이 묵었던 숙소는 옥하관이였다. 그런데 숙소가 오만관으로 바뀌었다. 오만관은 당시 남방 사신들이 묵던 숙소였다. 그래서 숙소 이름도 오만관이라고 했다. 명나라 유사가 나와 주청사신들을 오만관에 묵게 할 뿐만 아니라, 담장도 겹으로 치고 빗장도 굳게 잠그는 등 예년에 비해 갑절이나 엄하게 대하였다.¹⁰⁾ 주청사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굴욕적인 대접이었다. 이런 굴욕적인 일상 속에서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산뜻한 맛이 나는 진한 술인 秋露, 동정산에서 나는 굴, 양귀비가 좋아했다는 여지, 橙子에 감미료를 넣어 만든 橙丁 등 여러 진귀한 술과 음식을 접하였다. 국내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음식들이었다. 때문에 그런 체험과 흥분을 자세하게 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9) 고경명, 위의 책, 같은 곳.

10) 최 립, 『簡易集』, 卷之六, 辛巳行錄, '到館' 참조.

하지만 일국의 사신으로서 너무 안일함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이국에서 사행길의 피로도 풀고 여흥도 즐길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국의 문화 제도를 통해서 조선의 문물을 새롭게 혁신하여 국가를 부강케 하려는 사상과 의지가 약하다. 이것은 修己治人을 평생의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는 치자로서의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으로 보아서 조선 중기 사신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조선 중기만 하더라도 새로운 문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싹트지 않았다. 명나라나 조선이나 기존에 이룩된 터전 위에서 안주할 뿐 經國의 새로운 좌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술자리에서 먹었던 안주거리를 기록하는 일이 서장관의 자랑거리나 임무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제봉이 이런 여유를 가졌던 것은 자신의 임무 수행에 대해 다소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다.

瀝血南宮冀徹聞	남궁에 글을 올려 황제께 들리길 기대하니
區區忠赤豈空文	구구한 작은 충성 어찌 빈 말일 것인가?
移山不信愚公老	태행산 옮기려 하나 우공의 말 못 믿겠고
填海誰憐帝女勤	동해수 메우려 하나 누라서 정위의 고생 동정하라?
敢道微誠回白日	작은 정성 호소하여 황제 마음 돌리려 하고
願將照雪報吾君	애매한 원통 씻어 임금에게 보답하기 소원일세.
陪臣久議秦庭哭	진정의 배신 호곡을 의론한 지 오래였으나
閭闔門多未叫雲	아직껏 황제 앞에 하소하지 못하였네.

<詣禮部上書>11)

예부에 나아가 글을 올린 후에 지은 시이다. 수련은 잘못된 중계에 대해 반증 자료를 명나라 조정에 올리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주청사 일행이 명나라 조정에 와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야말로 간절한 소망을 담아 명나라 조야에 외교전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그러한 노력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함련은 愚公과 精衛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愚公移山은 『列子』에 나오는 우화로 어려움을 무

11) 고경명, 앞의 책, 같은 곳.

릅쓰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마침내 성공함을 비유한다. 그리고 帝女는 『山海經』에 나오는 전설상의 새인 精衛를 말한다. 이 새는 본래 炎帝의 딸이었다. 그런데 동해에서 노닐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정위가 되어 늘 서쪽 산의 나무와 돌을 물어다가 동해를 메우려 하였다.¹²⁾ 이 이야기는 의지가 강한 사람을 비유한다. 우공과 정위의 고사를 인용한 것은 주청사절단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노력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련은 명나라 황제의 마음을 돌려 국왕의 성은에 보답하려고 하는 제봉의 다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미련에서는 申包胥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楚나라에 원한을 품은 오자서가 오나라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침공해 초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때 신포서가 초나라를 구하기 위해 秦나라에 가서 구원병을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신포서가 7일 밤낮으로 눈물로 호소한 끝에 구원병을 얻어 초나라를 구출하였다. 제봉의 경우는 종계변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명나라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冤叫無因徹九臯	원통한 하소연 황제께 달하기 어려워
微誠空慕咽旃毛	조그만 정성 부질없이 가슴만 두드렸네.
都人定斬三浪返	도성의 민정 하루바삐 성사되길 바라는데
廟算虛勞一着高	묘당의 책략 또 한번 수포로 돌아갔네.
孤憤未消終古恨	외로운 울분은 천추의 한 씻지 못했는데
壯心寧減少年豪	호탕한 마음이야 어찌 젊을 때만 못할 것인가?
小臣奉使知無狀	소신의 받은 사명 완수하지 못했으니
書記非才愧掾曹	서장관의 자격 없어 이속들에게 부끄럽네.

〈聞聖旨不許降勅悵吟疊前韻〉¹³⁾

성지에 조칙을 윤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실의에 차 앞의 운에 따라 읊은 것이다. 명나라가 종계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지 않은 것은 다분히

12) 『山海經』, 北山經, 北次三經 참조.

13) 고경명, 앞의 책, 같은 곳.

외교적 술수가 작용하고 있었다. 명나라는 조선의 건국 때부터 의심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고려에서 도망한 윤·이초 등의 이간질이 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요인은 동북아의 지형학적인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명나라가 몽고족의 원나라를 축출하고 중원을 차지했지만 만주까지 지배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만주족에 대한 방어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만주족을 견제할 수 있는 대응 세력이 매우 필요했다. 조선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었다. 조선이 만주족의 배후를 견제해 준다면 명나라 입장에서는 동북방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을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종계 문제를 질질 끌면서 조선을 예속화하려고 했다.

때문에 끈질긴 외교적 노력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명나라의 의도를 사신 일행들도 꿰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명나라를 따르게 할 묘책이 없었다. 이런 상황인지라 답답하기만 했다. 『대명회전』을 고칠 수 없다고 그들이 내세우는 최고의 명분은 명나라 高皇帝의 유훈이었다. 조선왕조의 종계가 실린 것은 祖訓의 條章의 것으로 『대명회전』에 移錄된 것이다. 조훈은 만세토록 刪削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의 주장이 비록 옳다 하더라도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 명분이요, 내면적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결을 미루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조선 조정의 명나라에 대한 정보 부족과 외교력의 부족으로 볼 수도 있다. 조선 조정도 명분론에 사로잡혀 있는 측면이 강했다. 명나라 고위직이나 실력자들과의 내면적 해결을 모색하지 못한 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개발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실책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조선 조정의 주장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협상은 상대가 있다. 더구나 상대는 강하고 아쉬운 쪽은 조선 조정이었다. 명분론에 빠진 조선의 책략은 결국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주청사절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정당하고 쉬운 일을 근 2백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일은 주청사뿐만 아니라 서장관인 제봉의 입장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계변무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의 사행길을 나선 사신들의 충성은 높이 살만한 일이다. 주청사절단의 변무외교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변무외교의 성패에 대해서 언급한 곳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청사절단의 귀국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 『선조수정실록』에 따르면 변무주청사 김계회가 치계한 시점을 보면 1581년 11월 1일이었다. 그런데 『제봉집』과 『간이집』을 살펴보면 요동에서 除夕의 詩를 짓고 있다. 이것은 변무주청사의 귀국 시점과 서장관·질정관의 귀국 시점이 다름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청사는 다른 일행과 달리 조금 빨리 귀국했다. 이것은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김계회가 북경에서 돌아올 때 禮部가 보낸 咨文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신을 특별히 차견하여 『회전』의 전서를 수령해 가려는 것은, 모두가 선대의 억울한 일을 속히 씻으려는 것이다. 이에 사관에 있는 본국에 관한 조항들을 전부 조사하여 이미 본왕의 종계와 전위한 일에 대한 무고의 연유를 모두 각각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회전』이 완성되면 즉시 반사할 것을 주청하여 은명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¹⁴⁾

자문의 내용을 보면 변무 외교가 거의 마무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계와 전위에 대한 무고가 교정되어 『회전』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주청사 김계회가 일행보다 귀국 시점을 앞당긴 것은 이 사실을 조정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1581(선조 14)년에 있었던 제봉 일행의 사행 임무는 최선을 다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은 1584(선조 17)년이었다. 종계변무주청사 황

14) 專差陪臣 侯領會典全書 無非欲亟雪先世之冤 備查史館於該國項下 已將本王宗系及傳國被誣緣由 俱各詳載 如遇典成 卽請頒賜 不敢遲閣 以虛恩命云. (『宣祖修正實錄』, 14년 11월 1일)

정옥이 『대명회전』의 수정된 조선 관계 기록의 등본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자 선조는 직접 모화관까지 나가 황정옥의 일행을 맞이하고 종묘에 고하였다. 그리고 백관의 품계를 올려주고 죄인을 사면하는 등 경축행사를 하였다. 더불어 주청사 황정옥, 서장관 한응인, 상통사 홍순언 등에게는 加資하고 노비와 전택 등을 하사하였다. 그 후 1587(선조 20)년 사은사 유흥에게 주청을 겸임시켜 『대명회전』의 頒示를 요청하여 조선 관계 부분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1589(선조 22)년 성절사 윤근수가 『대명회전』 전부를 받아옴으로써 약 2백년간 끌어난 중계변무 외교가 마무리되었다.

4. 새로운 도전과 준비

제봉이 북경에 체류했던 기간은 52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⁵⁾ 이 기간 동안 비록 사절단이라 하더라도 북경에서의 활동은 매우 제한되었다. 때문에 마음대로 유적지를 구경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天壇, 國學 등 명나라가 자랑하고픈 몇 곳은 예외였다. 그런데 제봉의 인생에 있어 가장 의미 있었던 방문은 귀국길에 이루어졌다.

風雨柴城叫百靈	시성의 비바람에 일백 신령 울부짖었는데
老天無語畫冥冥	저 하늘 무심하여 백일도 빛을 잃었네.
血藏黃壤三年碧	황천에 뿌린 피 삼 년만에 푸른 옥으로 변했고
心照遺編萬古青	사책에 빛난 이름 만고에 푸르렀네.
燕獄孤魂應不泯	연옥의 외로운 충혼 사라지지 않을 텐데
崖山餘憤幾時平	애산에 끼친 여한 어느 때에 풀리리?
行廚架酒知難褻	행주의 간략한 술 함부로 하기 어려워
上巳詩中只涕零	상사의 시 가운데 눈물만 뿌렸네.

<發北京到城東……尤有所感焉>¹⁶⁾

15) 최 립, 『簡易集』, 卷之六, 辛巳行錄, ‘發京’ 참조.

16) 이 시의 제목은 ‘發北京到城東 路左有三忠祠 乃諸葛武侯岳武穆文丞相 此燕地也 於文丞相 尤有所感焉’으로 되어 있다. 고경명, 앞의 책, 같은 곳 참조.

이 시는 제봉이 三忠祠를 참배하고 지은 것이다. 삼충사는 한나라의 제갈공명과 송나라의 악비와 문천상을 제향하는 곳이다. 제목의 내용으로 보아 특히 문충상에 대한 감회가 깊어 지은 것으로 보인다.

문천상은 송나라 吉州 사람으로 자는 宋瑞履善이며, 호는 文山이다. 理宗 때에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그는 젊어서부터 의리가 분명하고 호기가 넘치는 인물이었다. 學宮에 모셔져 있는 구양수 같은 충신들의 초상을 바라보고, 후에 나의 祭器가 저곳에 있지 않으면 장부가 아닐 것이라 다짐을 했다. 몽고의 군대가 침입하였을 때는 사재를 털어 의병 1만여 명을 이끌고 수도 臨安으로 달려갔다. 가는 도중 원나라 군대를 만나 문천상을 따르던 의병은 거의 죽고, 수십 명만 겨우 목숨을 보존했다. 남은 군대를 이끌고 임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조정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대신은 겨우 6명이고, 나머지는 살길을 찾아 도망갔다. 문천상은 우승상이 되어 강화사절로 몽고군의 사령관 伯顏을 만나러 갔다. 그런데 강화사절단의 일원인 賈餘慶의 농간으로 몽고군에게 억류되고 말았다. 결국 송나라는 항복하고, 문천상은 大都, 즉 북경으로 압송되었다. 압송 중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부하들과 탈출해 송의 재건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사로잡히고 말았다. 적장 張弘範에게 끌려간 문천상은 무릎을 꿇으라는 원나라 군대의 강요에도 버티고 서 있었다. 장흥범은 직접 포승을 풀어주고 귀빈으로 대접하며 투항을 권유했다. 그러나 문천상은 자결하여 순절할 수 있도록 칼 한 자루만 달라고 했다. 북경으로 압송된 문천상은 원나라 세조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다. 원나라 입장에서는 강남을 통치하기 위해서 송나라 유민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문천상 같은 충신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원나라 세조는 재상과 추밀사 같은 고위직을 맡기려 했다. 그러나 끝까지 죽음을 고집하는 문천상을 설득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문천상은 결국 눈보라가 몰아치는 12월 9일 북경 근처 柴市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죽을 때 지은 ‘正氣歌’가 후대까지 회자되고 있다.

수련은 문천상이 죽을 때의 상황을 묘사했다. 마치 하늘도 충신의 마지

막이 애처로워 차마 볼 수 없었던 것처럼 눈보라가 몰아치고 대낮인데도 어둠 컴컴하기만 했다. 계절의 매서움과 충신의 마지막이 크게 조응을 이루었다. 함련은 문천상이 죽고 난 후의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춘추전국시대 周나라 蕞弘의 고사를 인용했다. 장홍은 쯤나라 范氏·中行氏의 난을 방조한 죄로 죄 없이 蜀 땅에서 죽었다. 그런데 죽은 지 3년 뒤에 그의 피가 碧玉이 되었다고 한다.¹⁷⁾ 이로부터 碧血은 충신이나 열사가 흘린 피를 이르는 말로 사용된다. 문천상도 바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문천상은 백척간두에 선 조국의 운명 앞에서 불퇴전의 용기로 원나라 대군과 맞섰다. 때문에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충신열사로 추앙받았다. 경련은 문천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 문천상은 북경 감옥에서 3년 동안 온갖 고초를 겪었다. 북경 감옥을 연옥이라 한 것은 북경 지방이 옛날 연나라 땅이었기 때문이다. 문천상이 연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연옥이라 하면 억울한 옥살이를 말하기도 한다. 미련은 자신의 애처로운 심정을 담았다. 문천상을 애도하기 위해 올린 술잔에 차마 눈물을 뿌리지 못하고, 시 속에 애도의 눈물을 담았음을 표현했다. 제봉이 평소 그의 이상적 인물로 설정한 사람이 문천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삼층사에서 특히 문천상의 절사를 그렸다. 이런 점으로 보아 훗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그가 자신과 가문을 던져 국가를 구원하고자 했던 충의가 어디에 닿아 있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의 『正氣錄』에 대해 “옛날 羅一峯이 文文山의 帖에 跋을 쓰면서 스스로 글자 하나에 눈물 한 방울이라 하였는데, 이 기록을 읽는 자는 글자 글자마다 울음이 터질 것이니, 글자 하나에 눈물 한 방울 정도가 아니다.”¹⁸⁾고 했다.

今夕何夕歲云暮 오늘밤은 어떤 밤인가 하니 한 해가 저무는데
故國平居有所思 평소 생각하는 것은 고국뿐이었네.

17) 『莊子』, 雜篇, 第二十六篇, 外物 참조.

18) 昔羅一峯跋文山帖 自謂一字一涕 讀斯錄者 字字可以釀淚矣 非夫一字一涕者哉. (윤근수, 『月汀集』, 卷之五, ‘正氣錄序’)

四十九年蘧伯玉 사십 구년 간의 잘못을 반성했던 거백옥처럼
白頭吟望苦低垂 시 읊으며 바라보니 백발이 드리웠네.

<七家嶺除夕集古句>19)

칠가령에서 옛 詩句를 보아 지은 것이다. 이 시는 그 중에 세 번째이다. 옛 詩句를 모아 시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이한 시작 태도라고 비판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시를 지은 시간적 상황이 제야인 점을 감안한다면 또 다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제야는 누구에게나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제봉에게도 지난 과거의 잔영과 사행길의 복잡하고 미묘했던 기억까지 하나하나 밀려들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고국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더구나 귀국 후에 벌어질 여러 정치적 상황을 생각하면 제야의 밤이 더 무겁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누구나 사행길이 끝나면 새로운 길을 나서야 했다. 대개의 경우 영전이지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미 동서인의 대립이 극단을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의 경우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특진시킬 수는 없었다. 그런 정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제봉인지라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제봉이 과거에만 집착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거백옥처럼 내일부터는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백옥은 春秋時代 衛나라 사람이다. 이름은 瑗이며, 백옥은 그의 자이다. 50세 때에 49년간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전한다. 자신에게 엄격하여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자신의 잘못을 고쳤다. 제봉의 경우도 내일부터는 50세이다. 거백옥처럼 과거와는 다른 삶을 설계하고자 깊이 고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개 숙임은 깊은 고뇌를 반영하면서도 보다 강한 결단을 예비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봉은 자신의 귀국을 파국으로 치닫게 할 수는 없었다. 자신의 귀국을 또 다른 환로의 출발로 삼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큰 공적을 세우고 귀국한 사신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이 있었

19) 고경명, 앞의 책, 같은 곳.

다. 그러므로 제봉의 과거에 대한 회한은 강한 권력의지의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5. 결어

제봉 고경명은 1581(선조 14)년 태조 이성계의 잘못된 宗系를 시정하기 위한 종계변무 사절단의 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제봉의 경우 어려움을 만나 은둔했을 때에는 천하가 그의 시를 외웠고, 일을 당해 나아갔을 때는 원근이 그의 공적을 아름답게 여겼으며, 일이 잘못되어 목숨을 바쳤을 때에는 고금이 그 의리를 높이 여겼다고 하였다. 종계변무 사행길은 제봉이 일에 임했을 때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종계변무는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복잡하고 미묘한 외교문제로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였다.

제봉은 이 종계변무 사행길에 많은 시를 지었다. 그 중의 하나가 ‘分水嶺’이다. 이 분수령 밑에 있는 물이 서쪽으로 흐르는 것은 遼河로 들어가고 동쪽으로 흐르는 것은 압록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신들이 이곳에서 시를 많이 지었던 것은 이곳이 휴식의 공간이면서 이 고개가 갖는 의미가 심장하기 때문이었다. 이 <분수령>에서 제봉은 종군보다는 동방삭 같은 인물을 본받고자 했다. 그는 용맹스럽고 민첩하고 기지와 재치가 번뜩이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謁文廟’에서 제봉은 중국문화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과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보여주고 있다. ‘首山’에서는 제봉의 준엄한 역사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훗날 잘못된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귀결되는가를 예견하는 좋은 징표라고 할 수도 있다.

사신들은 북경에 오자마자 宗系辨誣를 위한 본격적인 외교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명나라의 엄격한 통제와 언어 문제 때문에 외교활동에 애로가 많았다. 그래서 통사를 통한 공식적인 업무와 아울러 비공식적인 접촉

도 수행했다. 제봉은 외교활동 여가에 ‘寥中漫錄所見’을 통해 산뜻한 맛이 나는 진한 술인 秋露, 동정산에서 나는 꿀, 양귀비가 좋아했다는 여지, 橙子에 감미료를 넣어 만든 橙丁 등 여러 진귀한 술과 음식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詣禮部上書’와 ‘聞聖旨不許降勅悵吟疊前韻’에서는 북경에서의 종계변무 외교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종계변무 외교는 나름대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 종계와 전위에 대한 무고가 교정되어 『회전』에 상세하게 기재되었다는 내용의 咨文을 가지고 주청사 김계휘가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여 치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봉은 귀국길에 三忠祠를 참배하게 된다. 제봉은 특히 문천상에 대한 감회를 토로하고 있다. 문천상은 원나라에 대해 마지막까지 지조를 지킨 중국 역사에 빛나는 우국지사이다. 이 시를 통해서 보면 제봉이 자신의 이상적 인물로 설정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문천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제봉이 자신과 가문을 던져 국가를 구원하고자 했던 충의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와 자식들의 의병활동을 담은 기록을 『正氣錄』이라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귀국길에 제봉은 ‘七家嶺除夕集古句’라는 시를 짓고 있다. 이 시에서 제봉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보다 강한 결단을 예비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결국 제봉은 자신의 귀국을 파국으로 치닫게 할 수는 없었다. 자신의 귀국을 또 다른 환로의 출발로 삼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봉에게 있어서 1581년에 있었던 명나라 변무외교 사행길은 인생의 큰 분수령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환로에서의 진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욕망의 강화요, 다른 하나는 문천상과 같은 충신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삶의 좌표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자료

고경명, 『霽峯集』

윤근수, 『月汀集』

최 립, 『簡易集』

『朝鮮王朝實錄』, 『山海經』, 『列子』, 『莊子』, 『漢書』

저서

박은숙, 『高敬命 詩 研究』, 집문당, 1999.

신채호, 『朝鮮上古史』, 종로서원, 1948, 310쪽.

신태영, 『明나라 사신은 朝鮮을 어떻게 보았는가?』, 다운샘, 2005.

신호열, 『國譯 霽峯全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전해중, 『韓中關係史 研究』, 일조각, 1977.

논문

권인용, 「明中期 朝鮮의 入明使行」, 『명청사연구』Vol.19, 명청사학회, 2003.

_____, 「明中期 朝鮮의 宗系辨誣와 對明外交」, 『명청사연구』Vol.24, 명청사학회, 2005.

김현미, 「簡易 崔嵬의 使行詩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엄경흠, 「韓國使行詩研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이권재, 「霽峯 高敬命의 文學 研究」,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투고일 : 2010년 6월 30일, 심사 : 2010년 7월 15일~ 8월 10일, 게재확정 : 8월 13일

<Abstract>

A Study on Jebong Ko Gyeong-Myung's Poetry of Diplomatic Travel

Kwon, Soon-yoel

Jebong Ko Gyeong-Myung visited Ming Dynasty as a member of diplomatic mission in 1581(14th reign year of king Seonjo). The mission was delegated to ask Ming to correct historical record on Taejo Lee Sung-Gye. At this time, Go Gyeong-Myung was an official of diplomacy. He reported various results of the mission to a king and managed practical affairs of the mission. During diplomatic work, he had much hardship. However, he overcame it and obtained diplomatic achievements.

Ko Gyeong-Myung's poetry written during the diplomatic travel is categorized into three stages: First, the poetry written while crossing over Manchuria; Second, that written during diplomatic activities in Peking; and third, that written from when he left Peking until he arrived home. He wrote 64 pieces of poetry during the travel. The poetry he wrote while passing Manchuria displayed exotic feeling very strongly. The representative works are 'Bunsuryong' and 'Almunmyo'. At Bunsuryong, many ambassadors wrote poetry. It was space for repose with significant meaning. From this pass, a stream of water flows to the west, Liao River and another stream flows to the east, the Amnokgang. At the 'Almunmyo', Ko showed severe disappointment with Chinese culture and a pride of our culture.

Ko who arrived to Peking had many difficulties in diplomatic activities. Because of inhospitable treatment and strict supervision by Ming government,

it was very hard to work. At this time he wrote two poetic works titled 'Yeyebusangseo' and 'Munsungjibulhugangchikchangeumchupjunun'. He described his royalty to his country through these works. And he visited a shrine named Samchungsa around Peking on his way home. This shrine was established to serve the most faithful servants, Chuko Liang, Yueh Fei and Wen Tianxiang in China. In particular, Ko cherished his memory of Wen Tianxiang. Wen is a patriot who led the loyal troops and never yielded to Yien until he was killed. In this poem, Ko regarded Wen as his ideal.

On his way home, Ko wrote a poem titled 'Chilgaryungieseokjipgoku' where he prepared for a strong decision for the future of his country. He decided to make his return another beginning rather than an end. In this context, his diplomatic travel to Ming Dynasty in 1581 became a big watershed in his life. He showed a desire to explore a new way into government and set Wen Tianxiang, a loyalty, as a coordinate for his life.

Key words : poetry of diplomatic travel, a mission to correct historical records, mission, official of diplomacy, Samchungsa Shrine, Wen Tianxiang